

2008 새해설계 ①

포천소방서장 이보형

멀티소방관 육성 등 소방활동 역량 강화 나서

경기도내 31개 소방서중 포천소방서 청렴도 4위로 기록

포천 관내 주요기관의 지난해 실적과 새해 설계를 통해 포천시회 발전의 초석을 삼고자 한다. 연세 순서는 무순이며 해당 기관성과의 인터뷰 방식으로 편집한다. (편집자주)

포천지역은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관할면적으로 출동시간 지연 등 지역적 제한점이 있고, 폐지문화 확산 등 최근 생활패턴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 고령화 및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포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본서와 인거리에 위치한 일동, 내촌, 영북안정센터에 전문구조대원(3개 센터 12명)을 배치 운용하고 운전, 구조, 구급활동 등 전방위적 활동이 가능한 멀티(다가능)소방관 양성을 통한 인력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고 노인경찰 구급대 운영 등 노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밀착 안전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종합안전관리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포천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포천소방서 2007년 화재, 구조, 구급 재난유형별 소방활동 현황은 화재는 48건으로 사망4명, 부상 20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35억7천133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화재발생의 25% 재산피해의 48%가 공장·직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수도권 경비도 전체 입주한 신규업체에 중점적 소방시설 정비, 노후한 시설에 기인하여 높은 화재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다.

구조·구급활동은 구조인원은 528명으로 전년대비 57.9% 증가했으며(1일 평균 1.44명) 구급승인원은 5천622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해 1일 평균 15.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활동은 8~10월중 기간이 전체 구조인원의 41%로 7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폐재활동인구 증가로 교통·산악·수난사고가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소방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및 안전문화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



기 생존율 향상을 위해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9회에 걸쳐 8천85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심 정지 후 4분 이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6분이 지나면 뇌사 가능성이 증가하고 10분이 지나면 생명을 잃는 것으로 사멸에 이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속한 처치가 환자의 생존을 및 예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관 2007년 소방장비검열에서 2위를 차지해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포천소방서는 대민봉사영역도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월1회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전 직원 전달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상급 후원실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8개소 283만원이다.

이보형 포천소방서장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소방활동 역량강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향상, 재난사고 대비·대응능력 강화 및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후 소방차량 교체, 현장활동 장비보강, 영세공장 밀집지역 우선 소방용수시설 신설 등 현장 대응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소방공무원 1인이 근무하는 지역대에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으로(장수지역대 시범운영) 의용소방대 역할을 활성화하고 다가능 멀티 소방관을 양성·운영함으로써 현장대응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난현장에 능동적

발생 시 지역 구조·구급 기반을 확충하고, 수난·산악사고 유형별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방문 건강상태 체크 등 기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7~8월 혹서기 기간중 각 안전센터별 Call&Cool 구급대 운영, 119신고자 상환처리 단계별 문자서비스 제공 등 주민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한 감동주는 소방서비스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보형 포천소방서장은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민봉사 확대 방지, 안전사고 절대 방지, 청렴도 향상 등을 통한 대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포천소방서 직원의 청렴도는 지난해 관서별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소방서에서 4위의 높은 청렴도를 기록해냈으며 119상담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가지 있게 만들기 위해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 우대받는 직장문화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또 직원들에게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쌓아왔던 119의 공든 탑을 견고히 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초기대응에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의 안전사고는 소방조직의 위상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가 안전해야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안전사고 절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서장은 지난해 도내 소방공무원 5천240명중 안전사고 발생자 수는 42명으로(순직 3명, 부상 39명) 사고율은 0.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포천소방서에서 추진중인 특별소방안전대책에 대해 이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특별단속 등 대형재난발생 사전 차단으로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도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신속 출동체제 확립해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명보

인지도 높이기 위한 행보 가속화

지역현안문제 해결 방안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승원 본지 취재국장

4월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와 참여정부 인기가 낮은 점을 고려한 타인칭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6명에 이른다. 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당 인맥활기에 주력하면서 지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친분을 내세우거나 혹은 주요 당직이나 인맥이 강하기 때문에 공천하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지역유지들이 유권자를 만났을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포천시의 연천군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대도 지역에 관한 정책공약은 거의 실종되고 중앙당에 누구누구를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신청자가 많은 것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민들과 유권자들은 중앙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문제를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수많은 현안문제가 산재해 있다. 우리 지역은 남북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혼란정국이나 시국장으로 인한 수많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또한 군사시설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재산권 행사나 지역개발사업 지역에서 소외됨으로써 지역 발전이 더디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유로를 통한 남북교류 루트가 타 지역으로 형성되면서 그나마 유지해 왔던 경기북부권의 중심권역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천과 연천지역에 뚜렷하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포천과 연천지역은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수도권규제 정책으로 인해 반사적 이익보다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이외에도 포천과 연천지역은 낙후된 지역경제, 턱없이 부족한 교통인프라, 교육문화 등 수많은 사안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강화하면서 경기남부 보다는 오히려 경기북부지역에 더욱 강한 규제로 고착화되어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집행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집행지역지원법이나 미준공지역에 대한 주민비준공여지특별법 등을 제정해 평가 해 주는 것처럼 시흥만 내고 있다. 이들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할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뚜렷하게 관할부처가 어디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함께 국가예산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가 되나보다 하고 꿈에 부풀어 있던 지지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행지역지원사업법이나 주민비준공여지

특별법이 발표될 당시만 하더라도 포천시는 광역철도 포천연장노선이 포천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역공향 설립 등 7대 사업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

물론 이같은 7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발법의 근거는 있지만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결실률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개발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법만 검토하는데 최소한 2년 혹은 3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월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 많다.

첫 번째는 포천시와 연천군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당선이 목적인 듯 하다. 한나라당의 인기도가 처수자 자신의 정책공약 보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시켜 친분이 있는 방향으로 유권자들을 유도하는 것이다.

포천과 연천지역민들은 대통합민주신당 혹은 한나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진정한 지역민을 대변하고 국가를 위한 입법활동을 한 사람이 지역민에게 국회에서 어떻게 활동할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입후보예정자로서 자격문제가 커질 것이다.

특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포천과 연천은 수도권에 접경지역에 속하면서 이 중상층 중첩규제가 시달리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반세기 동안 아무런없이 유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최근 팽택미군기지 이전이나 군사 지도사계장 문제와 관련된 중앙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수한연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주민들의 민의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포천과 연천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만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집행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해 반세기 동안 피해만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해 지역민 문제를 연결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관련법에 의해 추진이 중단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사업은 특별법과 연계해 해소해야 한다.

셋째는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참여하는 지역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스스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사명들이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면 국회의원和市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에서 지역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해야만 한다.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현안문제가 된지 혹은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하고 도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의원들은 지역민과 접촉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은미  
「푸른 뜰에 서다」  
-남편, 연홍, 연수, 용주와의 파란 동행  
출판기념회

초대인 글

따사로운 햇살이 처마 끝 고드름을 녹아 내리는 정겨운 아침입니다. 먼발치 숲 끝으로 떨어지는 햇살의 언어를 담아 여기 곱게 짙은 색종이에 아이들과 함께 써 내려간 삶의 이야기와 마음으로 잉태한 꿈들을 한 권의 책으로 담은 「푸른 뜰에 서다」를 출간하여 작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라도 주시어 부족한 글 격려하여 주시고 남편, 연홍, 연수, 용주와의 파란 동행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자 이은미 올림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같은 길에서 시작해 그 길을 걷고 있다. 걸어오면서 기꺼워 더 빨리 달려 온 적도 있고 슬퍼서 잠시 멈춘 적도 많았다. 서로 다른 걸음걸이가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맞추어져 갔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손잡아주며 다함께 행복의 길을 향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작가의 말 중에서

일시 : 2008년2월23일(토) 오후3시  
장소 : 서울유유 동북부낙농지원센터  
(☎ 031-533-7450, 7470, 7480)-성동경문소로부터 약 850m  
인내문의 : 017-248-8523(이은미)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846번지 영천목장